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5. 20. (수)

김민석 국무총리, 에디 라마 알바니아 총리 면담

- 김민석 국무총리는 5.20(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선일보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 참석차 방한한 에디 라마(Edi Rama) 알바니아 총리와 면담하고, 한-알바니아 양국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김 총리는 한국과 알바니아가 수교 35주년을 맞이한 올해 라마 총리가 방한하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 고 하고, 비록 현재 한국과 알바니아 간 교류가 많지는 않으나, 향후 경제, 관광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하였다.
 - 김 총리는 알바니아가 세계 최초로 AI 장관을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AI·첨단기술 분야를 중시하고 있는 만큼 알바니아와도 협력할 기회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 ※ 알바니아는 '25.9월 청렴하고 투명한 공공입찰·행정 절차를 위해 AI 장관 '디엘라'를 임명
- 라마 총리는 알바니아의 국가 발전과 관련하여 영감과 원동력을 주는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양국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역사의 풍파를 극복하고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뤄왔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많다고 하면서, 앞으로 양국이 더욱 가까워지길 바란다고 하였다.
 - 특히 라마 총리는 알바니아가 교역, 투자, AI, 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하고, 국제무대에서도 유사 입장국으로서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 김 총리는 라마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이 서로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팀 장 조정희 (02-2100-2109)
	외교안보정책관실	담당자	서기관 이예은 (02-2100-2132)

